

고창 멜론, 비싸도 잘~ 나갑니다

150 농가 100ha 경작
1박스 4만원...평균보다 8% 비싸
품질 유지 위해 교육·컨설팅 지속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노력도



심덕섭 고창군수가 수확기 멜론농가를 방문해 직접 멜론을 따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의 농특산물인 명품 멜론이 우수한 품질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판매 중인 고창 멜론 한 상자 가격이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타지역의 일반 멜론 가격(3만원~3만5000원)에 비해 8% 높게 형성된 상태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사업지원 등 행정 및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업인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다는 평이다. 고창은 150농가가 100ha의 면적에서 멜론을 키워내고 있다. 매년 7-8월 이상기온 및 연작장애 등이 발생,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고 급성 시들 현상 또는 최근 유행하는 황화바이러스(CABVY) 등에 영향을 받으며 수확시기에 양질의 멜론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 등을 사용한 식물면역력 향상과 바이러스를 전이하는 매개충을 예방하도록 사전 교육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고창멜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농

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개발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멜론의 품질이 균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획득해 품질의 우수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농가들과 함께한 군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농촌진흥청 주관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평가'에서 고창멜론연합회가 농식품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23년 소비자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에서 7년 연속 수상이란 위업을 달성하며 고창 멜론의 가치를 드높였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 토양과 병해충 관리, 재배기술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회원관리로 재배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스마트도시 계획 착수

행정·교통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시설 발굴 5개년 계획 수립

정읍시가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과 간부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도시계획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는 행정, 교통, 기반시설, 건축, 농업, 환경,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설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정읍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고 추진 전략과 기본방향 등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자문, 시민 리빙랩 등을 추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의 스마트도시 분야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공유 냉장고' 이웃사랑 훈훈



정읍 '행복나눔 공유 냉장고'를 지난해 10월 시작한 뒤 2만7800세대의 취약계층이 이를 이용했다. 지난해 수성동 공유 냉장고 개소식. <정읍시 제공>

1년만에 2만7800세대 이용
이웃과 신선한 식자재와 가공식품을 나누는 정읍 '행복나눔 공유 냉장고'를 1년 만에 2만7800세대가 이용했다. 정읍시는 민간 주도 비예산 사업인 '행복나눔 공유 냉장고'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뒤 이달 현재 취약계층 2만7800세대가 2억2200만원 상당 식료품을 이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유 냉장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지역민이 신선한 식자재와 가공식품을 기부하면 취약계층 이웃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자원순환·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노렸다. 공유 냉장고는 내장상동과 수성동, 시가지 주민센터 3개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2억6500만원 상당 식료품을 기부받았다. 공유 냉장고는 오는 23일 연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새로 생김 예정이다. 정읍시는 동 주민센터에 공유 냉장고를 확대 개소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유 냉장고 사업이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도심 항공 유망도시 美 마리나시와 결연

문화·경제·과학기술 등 협력
시, 현지 방문해 교류 방안 모색



자매결연을 한 이순택(가운데) 남원시 부시장과 브루스 텔가도(왼쪽 세번째) 미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시장이 협약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이달 초 '세계드론제전'을 치른 남원시가 도심항공(UAM) 유망 도시로 꼽히는 미국 마리나시와 자매결연을 했다. 남원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순택 남원 부시장 등 대표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시를 찾아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브루스 텔가도 마리나시장과 강현철 부총영사(샌프란시스코), 오영수 한인회장, 마리나시 아시안 공동체(ACOM)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자매결연은 마리나시가 남원시에 먼저 제의하면서 이뤄졌다. 자매결연을 한 두 자치단체는 문화·경제·과학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마리나시에 사는 한인 교포는 3000명으로, 전체 인구(2만3000명)의 13%를 차지한다. 이곳에는 도심항공(UAM)전문 기업 조비에 비애이션이 들어서 있다.

남원시 대표단은 조비 에이애이션을 방문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교류 방안을 찾았다. 이순택 남원 부시장은 "앞으로 두 도시의 강점을 공유해 상생 발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브루스 텔가도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관계를 펼쳐 나가자"고 화답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축산 악취 개선 사업비 5억 확보

시, 공모사업 선정...가축분뇨 퇴비 생산 설비 지원 환경 개선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부터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55개 자치단체가 신청해 평가를 거쳐 남원시를 포함한 최종 33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시는 날로 높아가는 축산분뇨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올해도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약품 지원을 비롯해 분뇨처리 악취저감에 대한 시설·장비 등 16개 분야에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